

# ‘사면초가’ 고심 깊어지는 박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산적한 현안 발두여

## 안보위기 현실화 속 정국대처 주목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임기 초반의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6일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 외에는 이렇다 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정국 경색의 핵심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전날에 이어 이를째다.

전날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 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 국지도 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안보위기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데도 적극적인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표류사태로 김 내정자가 아직 공식 임명되지 못한데다 이 기구의 위원인 외교·통일·국방장관들이 공석이어서 미봉책으로 지적되고 있

다.

물론,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봄철 해빙기 안전대책 마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배려 등을 각각 주문하는 등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유독성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내정자에게 구미의 염소가스 누출사고 현장과 진도 어선 사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사고가 나면 국민의 생명과 돈이 더 많이 듣다”면서 “아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박 대통령은 또 매일 오전 하태열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현안을 쟁기도록 했다. 그러나 내각이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근본적 대처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도 당분간 보류하고 있어 국정 공백 논란이 증폭될 조짐이다.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국무회의는 ‘숫자 맞추기’ 외에 의미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알려지고 있으나 국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야당 압박에 신경을 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새 정부가 정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상황이 언제

해소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월 국회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 고수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강경하고 여야의 대치가 침에해 또다시 표류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고 짐작할 수 없어서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으며 ‘거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빠진 미래부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답화는 결코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당원 중심, 더 큰 민주당 노력”

### 김한길 의원 전대 출마 시사



이 되고 그 래야 이기는 민주당이 된다”며 “당 혁신의 근본은 당의 주인을 찾는 것이고, 당원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세력을 넓혀야 이기는 민주당이 된다”고 덧붙였다.

호남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지역문제 즉 호남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는 대안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호남이 겪는 차별 해소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호남당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호남당이 돼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호남 없는 민주당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면서 “호남이 민주당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세력이 보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선패배, 내탓이오 고백하고 용서 구해야

### 계파정치 눈감고 단일화 맹신 참패 불렀다”

#### 한상진 민주 대선평가위원장 중간보고 쓴소리

#### 여야, 정부조직법 물밀접촉

#### 방송 중립성 협상화두 부상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지만 여야는 물밀접촉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반면, 민주통합당이 ‘원 포인트 국회’를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 방안이 협상 희두로 급상승하고 있어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6일 민주당 박기준 원내대표는 ▲ 공영방송 사장, 이사 임명요건 강화 ▲ 언론청문회 개최 ▲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을 제시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해 그동안 비공개(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새로운 대안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전날 방송 중립성 담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 인허가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중립성에 대한 상시 감독권·제재권 부여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채널배정의 기준 설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대선평가 중간결과 발표



한상진(오른쪽)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의 안일한 판단이 대선패배를 불러왔다는 문항에 86.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안 전 교수 측 대해서도 “그쪽도 여러 문제점이 많은데, 이제 정치를 하려면 성실하게 자기 성찰과 새로운 생명력을 넣으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선패배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우선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문항에 90.4%의 찬성 의견을 보였다.

또한, 계파정치도 대선패배의 요인으로 꼽혔다. 계파정치의 폐해에 눈을 감고 오직 야권 후보단일화 만면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지지도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후보와 관련된 문항에 86.7%가 찬성한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결단의 리더십이 약해서 졌다는 문항이 5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11일 귀국 안철수, 대국민 메시지

### ‘새정치’ 담론 담을 듯

#### 노원병 출마 비판 정면돌파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가 오는 11일 귀국하면서 ‘새 정치’의 구체적인 담론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안철수 전 교수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전 교수는 귀국과 함께 지난 대선후보에 대한 소회와 현재의 정치 구도에 대한 비판, 미국에서 준비해 왔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구상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안 전 교수 측은 “우선적으로 조직이 뒷받침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기존의 정치 구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전 교수는 귀국 메시지로 ‘새 정치’를 강조할 것”이라며 “하지만 안 전 교수는 새 정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의 노원병 재보궐 선거 출마를 ‘쉬운 정치’로 평가하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안 전 교수는 대국민 메시지에서 신당 창당 등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교수는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교수는 대국민 메시지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경우, 야권 분열을 촉발시킨다는 비난과 함께 새 정치의 메시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큼데다 현실적으로 조작이 뒷받침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기존의 정치 구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전 교수는 귀국 메시지로 ‘새 정치’를 강조할 것”이라며 “하지만 안 전 교수는 새 정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기원
- 다기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 〈토지구함〉

- 지역 : 광주 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주거지역: 지연녹지 · 유통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기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 〈모텔 매도〉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92천 매도가 8억6천 만원

###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원도

### 매매기 협의후 결정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광장 청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광주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휴 011-602-2532

#### 전수영 매매

#### 급매매

#### 양산동

#### 6차선 도로변

#### 3층 건물(영업중)

#### 1층, 2층 식당

#### 3층(가정집)

#### 대형 주차장 완비

#### 토지360평

#### 건물240평

#### 현 토지가격

#### 450만 정도

#### 대형식당

#### 교회,무폐(가능)

####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 15억 용자있음

#### 010-3701-4767

</